

월요광장

말들의 숲에는 지극함이 있다



송 광 룡
시인·문학들 발행인

책상 위에는 원고 뭉치가 수북하다. 시, 소설, 수기, 동화, 고문서 등등. 찬물로 세우고 밤을 새워 들여다보아도 족히 몇 달은 걸리겠다. 왜 이렇게 검토가 늦느냐, 이런 대우를 받기는 처음이다, 하는 체근과 협박도 이어진다.

“모든 글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되리라.” 니체의 말대로라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정신’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원고 검토야말로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지만 중일 종과부적에 시달리고 나면 시हत말로 혼이 나간다. 만신창이 몸으로 타인의 ‘피’와 ‘정신’을 맞이하는 것은 예외도 상도로 아니려나. 그러면서도 오늘은 꼭 이 글만은 봐야지! 하고 의자를 당겨 앉곤 한다.

어떤 말이든, 말들의 숲에는 지극함이 있다. 옷자란 보리밭은 꺼칠하고, 텅 빈

고목의 속살에는 푸른 이끼들이 무성한 법. 그 까칠함에 손을 베이고 푸른 이끼들에 눈을 뒀는 나는 분명 행복해야 맞다. 그런데도 이튿날 아침 나는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답신을 보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난해 늦가을쯤으로 기억한다. 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의 전화를 받았다. 학생들 몇 이서 장편소설을 썼는데 출판이 가능한지는 물음이었다. 순간,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작가도 아니고 고등학생인 데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학생들의 공동창작품이라니, ‘아니겠다’ 싶은 맘이 앞섰다.

이쪽의 속내를 짐작했던지 상대방의 부연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소박한 문집으로 몇 권 만들면 되겠다 싶었으나 광주 시교육청이 주관한 ‘책 쓰기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출판과 함께 일반 서점에서 판매도 하면 어떠하겠나”는 얘기였다. 망설이는 마음과 다르게 내 입은 달력 이렇게 내뱉고 만다. “예, 원고가 완성되면 한번 해 봅시다.”

물론 출판사에 투고된 글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즈막 청소년들의 글쓰기가 화제여서 꺼낸 얘기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부모와 부모의 삶을 인터뷰해 책으로 펴냈고, 충남에서는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이 있었다. 인천

시교육청은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사업’으로 초·중·고 7개 팀을 선정해 집필과 출판과정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과 변화들이 얼마나 실속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전 야심 차게 시작했다 햇물만 켜 청소년 문예지 ‘삼띠르’ 생각이 났다. 이쯤에서 다시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털어놓자면, 장편소설 ‘어머전시’(Emergency)는 광주 석산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쓴 아마추어 소설이다. 임신중독증으로 아내를 잃은 한 의사의 외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낸 성장소설이다. 입시에 쫓기는 학생들의 작품이니 구성이나 문체, 주제의식도 결코 빼어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짚어는 대목은 있었다.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어 주제를 잡고 서술하면서 맞춤법·문법·수사법 등을 깨우치고, 각 장면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찾아 7개월 동안 모형을 한 구슬땀이 그것이다.

지역 출판의 어려움을 말하자면 출판의 중앙 집중, 도서 유통의 난관, 독서 인구의 감소, 지역 서점의 도산, 독서운동의 확산,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이미 확연해진 문제들을 피해 가기 어렵다. 거개가 이미 상식화된 얘기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이다. 앞서 열거한 출판의 여러 문제들보다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가장

원조적인 매개가 바로 글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되고 싶어 흉내 내거나 이력에 저서 한 권 더 얹고 싶은 듯한 글을 달할 생각은 없다.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있으니. 대신 탐방율이 푹뚝 떨어지는 글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한물가서 허름한 간판 위에 거미줄이 덕지덕지 내려앉은 거리에도, 독자와 작가와 출판사의 타는 목을 적서 줄 흥일점의 주막 한 집은 있으리라 믿기에. 그래야 어떤 말이든, 말들의 숲에는 지극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지역의 출판사와 잡지사 등이 지역 출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지역출판잡지인 연대’를 결성했다. 올해만도 광주, 부산, 제주, 대전, 수원, 강원, 대구 등지의 출판인들이 순천과 대전에서 모임을 가졌고, 가을에는 제주에서 회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도서전’도 열 계획이다.

또 하나는 부산문화재단의 선구적인 사례다. ‘지역 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소재 출판사의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구매하여 지역 내 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부산시는 2009년부터 관내 공공도서관에 지역 출판물을 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말들의 숲에 지극함이 넘치고 그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을 때다.

社 說

12년 만의 교섭단체 구성 정쟁보단 협치를

잊그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나눠있던 4대 광주시의회 하반기 기 의장 선거 무렵인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원 22명을 정당 별로 분류하면 더민주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시의원 8명이 국민의당에 입당함으로써 정당 분포가 재편된 가운데 이번에 더민주가 먼저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우선 정당의 결속력 강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조정해 당의 입장을 단일화함으로써 현안에 대해 일사불란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 통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더민주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당 역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 교섭단체를 결성하면 쓸데없는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당장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정당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한다. 양당체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정쟁만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광주 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 정당에 몰려 있는 현실도 변수다. 당적이 다른 시의원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소속 정당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대립한다면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6기 후반기는 광주시가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따라서 양당 구도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만에 하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은 도외시한 채 편 가르기만 한다면 시민들의 질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센 브렉시트 후폭풍 정신 바짝 차려야

설마 했던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됐다.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한국경제에 긴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조선과 해운 등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도 성장 눈높이를 2%대로 낮췄다. 당장 외국에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해 이후 한국경제 부진의 단초를 제공했던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영국·EU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국과 EU 지역 싼물경기가 위축되면 대외 교역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잘만 대비하면 브렉시트의 충격은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EU 및 영국 무역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

출 금액 기준 영국 의존도는 1.4%, EU 의존도는 9.1%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문제다. 세계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으면서 장기 저성장 및 디플레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회복 위험도 가중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브렉시트가 전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히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브렉시트 충격은 결코 단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싼물경제에 파장을 가져올 대변 약제다. 여야 3당이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이윤의 함정



이 본 석
변호사

최근 광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필자는 피해자 중 일부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필자는 1달에 한 번 정도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상담은 사기에 관한 것이 다.

자본주의 사회인 현실의 한국은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같이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들고 경기가 불황에 가까울수록 대부분 사람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사기사건을 상담하고 변호하면서 사기의 종류와 사기의 예방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기의 종류는 많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차용금 사기, 부동산매매 사기를 비롯한 최근의 인터넷몰품 사기와 유사수신(투자) 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의 특징을 보면 기격을 엄청나게 싸게 팔고 정상적인 매매방범을 벗어나 있거나, 바로 눈앞에 큰 이익이 보이게끔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믿게한 후 매매 혹은 투자 등을 하도록 유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 케이블TV 드라마에서 사기꾼이 “사기는 그 사람이 말을 믿게끔만 하면 너무 쉽다”라고 독백을 하면서 사기

치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보통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가시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준다.

반면에 피해자는 대부분 금전적인 여유가 없거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사람을 잘 믿는 특성이 있으며 초기에는 사기꾼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 난 후 투자 등을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미 사기꾼은 이러한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짜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이번 오피스텔 분양사기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중복분양 사기인데 가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서 제시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를 동원했으며, 분양대금 완납확인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

여 투자자에게 믿음을 줬다. 마지막으로 보통은 신탁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인 건설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평소 주위사람에게 사기의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하는데(금융기관을 이용한 주식투자나 정상적인 부동산매매 등은 제외한다) 이자로서 생각해볼 때 연 5% 이상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해준다.

특히 여러분은 자신과 친한 사람을 믿는 것은 좋지만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투자 등의 유혹이 있을 때는 친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다’는 심정으로 투자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도 의심이 든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싶다.

기 고

세계유산과 아름다운 동행



신 경 속
고대문화재연구원 문화마루 대표

세계유산 등재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 문화 유산보호와 보존에 대한 국민의 수준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된다.

세계유산은 그 규모나 특징에서 인류 모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성, 완전성을 갖추고 있어 전 인류가 보존하고 보존해야 하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 지정제도의 취지는 선조가

만들고 가꾸어 놓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속에 살며 즐기고 있는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와 같이 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12개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다. 오는 7월에는 한국의 서원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유산 등재 이전에 지정되는 잠정 목록에는 강진 도요지, 서남해안 갯벌, 낙안읍성 등 15개의 유산 등이 포함돼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 덕분에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등재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등재 당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그대로 지키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등재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그 가치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는 유산지역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화유산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유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함께 유산을 통한 지역의 상생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문화유산 정책을 보면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유산의 원형을 잘 살리고 이어나가되, 지역민과 함께 주변의 문화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세계유산인 화순고인돌유

적은 탁월한 거석문화 기념물로서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 당시만 해도 우리 지역에 흔한 고인돌 또는 바윗덩어리를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 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인돌시대의 문화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다시 재현할 만큼 역량이 성숙돼가고 있다.

특히, 3천 년 전 이 지역에서 살았던 ‘고인돌 사람들’이 화합하고 협동했던 공동체사회의 모습을 고인돌 축제를 통하여 다시 재현하여 되살리는 일은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으로 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치와 문화를 후대에 계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와 환경을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영구히 보존하려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처럼 주변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유산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차례다.

無 等 鼓

일제 찬양죄

우리는 진일 매국노 하면 반사적으로 이완용을 떠올린다. 중국에도 그런 인물이 있다. 왕징웨이(汪精衛)다. 그는 신해혁명과 국민혁명, 종일전쟁 시기에 걸쳐 활동했으며 난징에 진일정권을 세우고 주석으로 취임한 매국노의 아이콘으로 여겨진다.

왕징웨이는 원래 중국 국민당 일원으로 쑨원과 친밀했으며, 장제스와 대립한 라이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종일전쟁 발발 이후에 진일파로 변절했다.

정치적 기반이 독일 나치나 이탈리아 등 유럽 파시스트와 연결에 되어 있었던 그는 일본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그만뒀아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는 등 항일전쟁에 반대했다. 특히 중국군이 점차 일본군에 밀리자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는 일본이 패망하기 전인 1944년 11월 10일 일본 나고야에서 죽었다. 왕징웨이가 죽은 후 일본은 그의 유해를 중국으로 운송했다. 남목(楠木)관에 입관된 그의 유해는 난징에 묻혔고, 일본군은 그의 묘가 파괴될 것을 우려해 콘크리트를 부어 굳혔다고 한다.

하지만 종일 전쟁이 끝나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난징에 입성하자, 그

의 묘는 폭파됐고 유해는 강가에 버려졌다. 이는 진일매국노 한 사람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나치에 부역했던 최고위 인사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10만 명의 나치 부역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정치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는 ‘악식 처형’을 단행했으며,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어찌 보면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남성들 탓임에도) 직업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깎아 버리는 처형도 있었다.

정부의 국제연구기관 센터장이 공식 석상에서 ‘천황(일왕) 폐하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유럽은 지금도 전범 나치를 찬양한 사람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찬양했을 경우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모든 것을 용서하더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 찬양’ 행위만큼은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 역사적 정의 아니겠는가.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